

iM FX Brief

거침없는 원화 강세, 1,300원이 보인다

FX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주간 동향: 8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도 달러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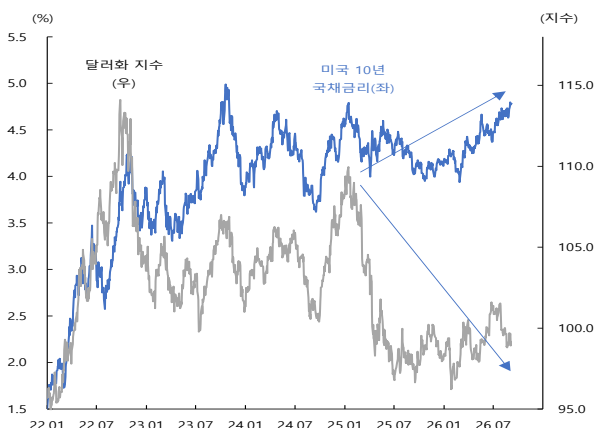
- 미국 장기 국채금리 및 유가 상승 그리고 8월 고용지표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 흐름은 지속됨. 물론 8월 비농업일자리수가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달러화 낙폭이 일부 축소되었지만 달러 약세 흐름을 반전시키에는 역부족이었음
- 유로화는 강보합세를 보임. 8월 미국 고용지표 서프라이즈로 9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감이 되살아났지만 유로존 지표개선 등이 유로화 강세를 지지함
- 달러-엔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함. G20 재무장관회담에서 베선트 장관이 일본측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 등을 요구하는 등 엔화 강세 유도를 압박함. 이에 일본 정부의 추가 외환시장 개입 경계감 등이 엔화 가치를 큰 폭으로 상승시킴
- 위안화 역시 강보합세를 보임. 유로 및 엔화 가치 상승 등이 위안 강세로 이어짐
- 호주 달러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기대감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강세 영향으로 강세를 보임
- 달러-원 환율은 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원화가 거침없는 강세 흐름을 유지함. 달러 약세와 더불어 국내 달러 공급 우위 수급 여건이 강한 원화 강세 흐름을 뒷받침함

	9월 4일 증가	전주 대비 (%)	전년말 대비 (%)
달러화 지수	99.2	-0.53	0.87
유로-달러	1.161	0.25	-1.12
달러-엔	156.3	-2.39	-0.29
역외 달러-위안	6.71	-0.34	-3.84
호주달러-달러	0.72	0.54	7.94
달러-원	1,350.1	-2.13	-6.54

금주: 미국 물가지표 및 ECB 회의 등으로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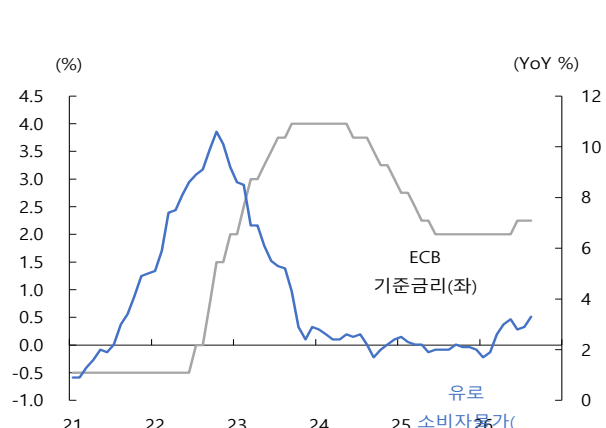
- 8월 미국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이에 따라 이번주 발표된 8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외환시장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임. 또한, 8월 미국 재정수지 지표도 주목해야할 지표임. 지난 7월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가 8월 달러화 약세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8월 재정수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임. 이 밖에도 9월 10일 예정된 ECB 회의 역시 유로화의 추가 강세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벤트임.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25bp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음
- 원화 엔화간 동조화 현상이 재차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달러-엔 환율의 추가 하락 여부도 주목해야할 변수. 미국 물가와 지표와 ECB회의 경계감 속에서도 달러-원 환율은 추가 하락 예상. 금주 달러-원 환율 밴드는 1,330~1,370원으로 예상함

그림1.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강화 분위기 지속: 국채금리 상승 속 달러 약세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으로 9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